

'K-문화 수도 전주' 비전 · 실행 방안 모색

전주시 · 전주시정연구원, 소리 · 한글 기반 K-콘텐츠 비전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K-콘텐츠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13일 완판본문화관 인칭에서 '소리와 한글 기반 K-콘텐츠 비전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주가 보유한 독보적인 문화 자산인 판소리와 완판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리와 한글, 콘텐츠로 여는 K-문화 수도 전주-전문가·시민과 함께 비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춘구 향악연구원 연구위원과 안준영 완판본문화관 관장,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춘구 연구위원은 'K-소리와 AI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안준영 관장은 '소리와 한글 기반 K-콘텐츠 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 소리·한글의 도시로서 완판본과 판소리라는 독창적 문화자산을 보유한 점을 강조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3일 완판본문화관 인칭에서 '소리와 한글 기반 K-콘텐츠 비전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덕 교수도 '전주시 K-콘텐츠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전주의 전통 문화 자산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

주의 대표 문화 자산인 소리와 한글을 미래 기술 및 산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와 협력해 전주가 세계 속의 문화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춘천 우수 문화예술 교류 나서

전주문화재단 · 춘천문화재단, 공동 공연

전주문화재단(최락기 대표이사)과 (재)춘천문화재단(박종훈 이사장)이 전주에서 공동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지역 간 우수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으로, 3,3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창작음악극<소낙비:처우>는 춘천 출신 소설가 김유정의 『소낙비』를 모티브로, 이상 『날개』와 김동진 『감자』 속 인물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작품이다.

황운기 연출이 맡은 이번 공연은 급격한 시대 변화 속 자본주의가 빼앗은 사랑과 윤리의 의미를 되짚으며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존

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공연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주와 춘천의 예술단체, 시민, 관계자 등 회당 250여 명씩 총 70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연 후에는 두 재단 관계자와 참여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교류 간담회가 열려, 지역 예술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예술 교류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희원 소장 초청 '남원 아카데미'

남원시는 오는 25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저속노와 열풍을 이끈 정희원 소장(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을 초청, '저속노와 마인드셋, 100세까지 잘먹고 잘사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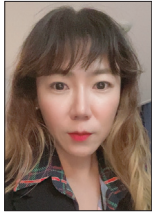
이번 강연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관리법과 올바른 식습관 등 저속노화의 핵심 원칙을 소개하며, 테너 강창련의 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 및 관내 경로당 IPTV로도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김효정 프로그래머 선임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새로운 프로그래머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임된 김효정 프로그래머(사진)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단계에서 합류, 문성경·문석 프로그래머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김효정 프로그래머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학부를, 뉴욕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영화 전공으로 취득했다. 저서로 '아한 영화의 정치학', 'ReFocus: The Films of Yim Soon Ryé', '도리스 위시먼의 영화들' 등이 있으며, Arirang Radio에서 영화 데일리 프로그램 Cinefactory 진행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영화 평론가이자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서평 - 윤정훈 '전북愛 전북愛'

화려한 구호 아닌 흙길 위의 정치

격동의 시대 헤쳐온 성장 서사, 15일 토크 콘서트 통해 공개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주)이 무주 드림연수원 1층 대강당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자신의 두 번째 이야기인 '새로운 시작, 정훈이의 두 번째 이야기: 전북愛, 무주愛' 출판기념회를 겸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독자들과 만난다.

이 책은 윤 의원이 초선 도의원으로서 3년 여간 걸여온 '현장 정치의 기록'이자,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헤쳐온 한 인간의 감동적인 인생 역정을 담아내고 있어 독자에게 큰 감동을 준다.

책의 핵심은 '전북愛, 무주愛'라고 하는 윤 의원의 자신의 전북과 무주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심이라고 표현한다.

윤 의원은 정치를 수치나 보고서가 아닌, 곧바로 사람의 눈물과 웃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매일 같이 밝아온 흙길 군민들의 눈빛 속에서 정치를 배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고단한 일상, 군산의료원의 좁은 진료실, 농촌의 빈 교실, 무종 산불 피해 현장,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 문제 앞에서 자신과 같은 정치인이 서 있어야 할 자라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민생의 작은 불편이 제도과 예산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 감동을 준다.

자신이 밥집을 설치며 고심하여 연구 노력

하여 고통 농업인 소규모 영농 지원 조례 추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발의, 공공형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가결 등은 처절한 민생 현장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낸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또한 무주의 상징인 태권도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태권도 메가시티' 비전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을 촉구하는 등 힘 없는 자신의 노력도 자세히 이 책에 담겨 있다.

책에 담긴 윤 의원의 인생 역정은 독자들에게 특히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소년기, 청년기를 관통하는 시대의 격류 속에서 험한 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야만 했던 어려움, 그리고 낳아주시 아버지와 평생 헌신으로 길러주시 앞섬 아버지(故 권혁방)를 거의 같은 해에 떠나보내야 했던 개인적인 아픔이 담담하게 기술하여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인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르쳐 준 부모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무주군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자신의 토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

을 지탱하는 뿌리는 결국 가족과 고향 무주였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력 또한 흥미롭다. 해군 사령관으로서 7년간 복무하며 책임과 결단을 배웠고, 이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수행비서로 국회에 입성하며 큰 정치인의 곁에서 여러 일을 넓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을 배웠다.

정 총리에게서 배운 청렴, 성실, 준비, 헌신의 가치는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걸으며 지켜야 할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같은 인생의 좌표가 되었다.

특히 2024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격랑의 시대를 겪으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의 힘을 현장에서 체감한 경험을 적은 내용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윤 의원은 "정치가 민생을 외면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무주 스키장 상권 붕괴 등 현장의 절규를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고 솔화한다.

이 책에는 윤 의원의 정치적 여정을 함께한 주요 인사들의 깊이 있는 추천사가 실려 있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3)

사모하는 마음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다음 해, 남준과 명희는 무장초급중학교에 입학했다.

정초가 되자 명희 어머니 연기택이나 남준 어머니 신희택은 다른 때보다 더 바빠졌다. 물론 아버지 강병도나 박규환도 당달아 바빠 움찔했다.

안 사람들이 굿을 하러 갈 때는 바깥양반들도 전문 약사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따로 굿패로 각 마을의 큰 행사에 참여하였다.

정초가 되면 굿패나 당골은 대목을 맞이하는 것이다. 신희택과 연기택은 각기 근동의 일대에서 열 개의 마을을 당골판으로 갖고 있었는데, 각 마을의 전속 무당인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집안의 액막이나 재수굿을 할 때는 어김없이 전속 무당인 신희택이나 연기택을 찾았다. 때로는 신수를 물어보거나 태어난 아이들을 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당의 지식으로 이름을 올려 액막이로 한동안 당골의 보호 아래 있게 하였다.

경기지방을 기점으로 위쪽 지방은 강신무라 하여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반면 아래쪽 지방은 대개 선대로부터 이어받아 당골이 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신희택과 연기택도 어머니로부터 무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고창의 당골들은 대개 이런저런 혈연으로 엮여 있었고, 아내가 당골이면 남편은 대부분 약사를 하거나 굿패로 활동하였다. 물론 남자가 당골인 경우도 많았다. 지식들에게 무업이나 약기 다루는 법이 세습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무업에 쓰는 경이나 춤 등을 익혔고 약기 또한 다루게 되는 것이다.

남준 어머니 신희택을 비롯하여 고창 지역 다른 당골은 대개 신당에 단군성조상을 걸어놓고 정안수와 촛불을 켜놓는데, 명희 어머니 연기택은 단군성조 상 대신 옥황상제 상을 걸어놓았다.

연기택의 고향인 부안면 용산리 연기마을에 살면서 무업을 이어가고 있는 연기택의 어머니 입안택이 보천교의 교인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보천교의 교리와 상을 신당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신희택과 연기택은 새벽닭이 울기 전 일어나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쪽을 진 뒤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정안수를 신당에 올리고 향불을 켜 뒤 단군성조와 옥황상제께 기도를 올렸다.

남준과 명희가 중학생이 되면서 둘은 더 성숙해졌다.



당골이 되는 데 확신을 갖지 못했던 명희도 처음 어머니 연기택의 당골을 이어받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마음을 다해 춤과 독경에 쓰는 무업을 배우는데 더 열심이었고 육십갑자로 사주풀이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진력했다.

주로 굿을 할 때 신을 부르는 창배(창배), 신이 인간을 꾸짖거나 복을 약속하는 공수, 사람들이 신에게 소원을 비는 축원, 인간과 신이 함께 즐겁게 화합하는 오신(娛神)을 할 때 부르는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 등 무가 또한 목 트임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남준도 그렇고 명희도 그렇지만 서로가 불편해졌다.

국민학생 때와는 달리 어쩔지 서로를 보면 가슴 한쪽이 막히면서 나는 한 같은 냄새가 어렸는데, 그 향은 낯선 냄새여서 그걸 얼른 받아드리지 못하는 가슴은 괜히 동광거렸고, 그 동광거리는 게 또 어색해서 어릴 때처럼 가볍게 다가가 아는 체를 하거나 편하게 말을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남준보다는 명희는 그걸 더 못 견뎌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예 남준을 외면했고, 예전처럼 봉림마을 남준의 집으로 일부러 놀러가는 일도 없고, 굿판에서 만나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간혹 학교에서 국민학교 동창이 '너 원래 남준이랑 친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 얼굴을 얼른 돌렸는데, 저도 모르게 만면에 홍조가 어리곤 해서 괜히 마음속 어딘가를 아이들에게 들릴까 봐 일부러 남준이 보일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아하는 마음이었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마음이었다.

며, "그는 무주의 하늘과 들을 품에 안고, 전북의 사람과 시간을 함께 살았던 정치인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변화와 혁신 추진력과 신뢰라는 키워드로 무주의 미래를 설계하며 지방 소멸의 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윤 도의원을 칭찬하며 정치적 동지로서의 끈끈한 연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윤정훈 도의원 후원회 이진복 회장은 추천사에서 윤의원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치하하며 "주민을 만나면서 소소한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고 배곡하게 메모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윤 의원의 품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공직인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책임과 품격이 요구되며,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태도, 일상의 습관까지 타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이고,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앞으로도 무주에서 출발해 전북과 대한민국의 누비며 내일을 향해 깨끗하게 쉬지 않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걸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하고 있다.

윤정훈 도의원이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이 책을 통해 찾기를 바란다.

/이만호 기자 · 무주=전문선 기자

